



월서 스님의 주련 이야기 3

큰 그림자가 작은 그림자 덮는다

[원문]

청허영 거사암(淸虛影居士齋) 유각무수 무비불사(有覺無修 無非佛事) 백화청송 황화취죽(白花靑松 黃花翠竹) 공산무인 수음화개(空山無人 水泣花開) -신홍사 보제루

[번역]

맑고 깨끗한 그림자, 앉아 있는 사람 덮으니 깨달음 있어도 닦지 않으면 불사가 아니로다. 눈 덮인 흰 봉우리에 푸른 소나무, 노란 꽃 가운데 솟은 푸른 대나무 텅 빈 산에는 인적 없는데 꽃은 피고 물은 울면서 흘러가네.

[선해(禪解)]

내가 승가(僧家)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깨달음은 건방하좌(放下着) 즉 '놓아 버려라'이다. 수행자가 이를 실천하지 못한다면 깨달음은 물론, 성불하기 힘들다. 바로 방하좌를 실천하는 순간, 승가의 일원이 되고 부처님 제자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사미승 때 나는 좀처럼 출가와 세속의 경계조차 제대로 구별하지 못했다. 그런 나를 엄하게 꾸짖은 분이 계셨는데 바로 나의 은사이셨던 금오(金烏) 스님이다.

출가자는 평생 스승의 도(道)의 그림자를 밟고 다녀야만 한다. 예부터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말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승가에서는 스승의 그림자를 뛰어넘어야 비로소 '깨침'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 금오 스님의 그림자는 뛰어넘을 수 있는 그림자가 아니었다. 평생, 계율을 중시하고 본분을 잃지 않으셨던 금오 스님은 내게 있어 맑고 깨끗한 스승의 그림자를 항상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런 우리 스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 나는 부단하게 수행을 해야만 했다.

그런 우리 스님이 열반을 하신지 벌써 마흔 한해가 흘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그림자는 아직도 누각처럼 우뚝 서 있어 나의 그림자를 온통 덮는 것 같다. 그만큼 나의 수행이 금오 스님을 아직도 따라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칠십 평생 우리 스님의 은혜를 갚는 길은 도대체 어떤 길일까?

설악산 신홍사 보제루 누각(樓閣)에 새겨진 주련은 마치 한 편의 선시(禪詩)처럼 아름답고 그 속에 담긴 의미는 헤아릴 수 없이 넓고 깊은 것 같다.

'맑고 깨끗한 그림자/ 앉아 있는 사람 덮으니.' 누각은 원래부터 한 폭의 그림이다. 특히 해가 높이 지상에 뜰 때인 늦은 오후에는 그 그림자가 누각 안에 든 사물의 그림자를 덮는다. 이쯤이면 산승들의 마음은 어느 새 고요 속으로 잠기게 되

고, 이윽고 법고(法鼓)소리가 적(寂)을 깨기 시작한다. 이 때부터 짙은 다시 무념(無念)의 상태로 들어 가게 되는 것이다. 절의 법당을 수행터라고 한다면 누각은 절터에 가깝다. 하지만 스님들에게 있어 절은 휴식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다. 말하자면 누각에 앉아 쉬는 것도 수행의 연속인 것이다. '깨달음 있어도 닦지 않으면 불사(佛事)가 아니다'라는 글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대개 누각은 문과 벽이 없이 높이 지어진 집을 말하는 데 신홍사의 누각은 송유역불 시대인 조선 시대 때 세워졌다. 당시 유생들은 이 신홍사에 자주 들러 유흥을 즐겼다고 하는데 유생들이 갖을 쓰고 고개를 뺏뺏하게 쳐들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다른 절의 누각 보다 낮게 다락을 조성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 누각의 형태는 사천왕문

주련의 내용처럼 인적 없고 고요하지만 그렇게 꽃은 피고 물은 흘러가지만 울고 있다는 것이다.

수행자들은 마치 깨달음이란 아주 크고 넓다고 생각하기 쉽다. 불교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 바로 이 같은 생각 때문이다. 불교는 그런 것이 아니요, 선 또한 그런 게 아니며 수행 또한 그런 것이 아니다. 바로 이 모든 게 자신의 마음속에 든 탐진치 삼독을 능히 놓지 못한 까닭임을 알아야 한다.

중생이란 본래부터 부처라고 했다. 그것은 마치 물과 얼음과 같다. 물을 떠난 얼음이 없고 얼음을 떠난 물이 없듯 중생에게서 부처를 찾아야 하고 내 안에서 부처를 찾아야 한다. 주련에 새겨진 특별한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

말하자면 누각 속으로 들어온 그림자가 사람의 그림자를 덮어 버리듯 깨달음도 스스로 닦지 않으면 성불이란 불사를 결코 이룰 수가 없다. 큰 나무 밑에 선 사람은 자신의 그림자를 찾을 수 없듯이 깨달음이란 이와 같다. 지독한 추위와 눈보라 속에서도 푸른 소나무는 서서 있고 봄이면 화사하게 피는 노란 꽃들 사이 속

에서든 꿈은 대나무는 빛이 나기 마련이다. 하지만 꽃이 피고 물이 흐르듯 세월은 그냥 흘러가나 속으로 우리는 매 순간을 소홀히 않아야 한다. 두 번 다시 흘러간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 주련의 글귀처럼 이때를 놓치게 되면 큰 그림자에 자신의 그림자가 지워지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깨달음을 증득했다는 그 순간부터 열심히 보리해야만 스스로 슬(樂)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인생은 '일기일회(一期一會)'라는 말이 있다. 기회란 인생에서 단 한번만 만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을 소홀히 않아야 한다. 두 번 다시 흘러간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 주련의 글귀처럼 이때를 놓치게 되면 큰 그림자에 자신의 그림자가 지워지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깨달음을 증득했다는 그 순간부터 열심히 보리해야만 스스로 슬(樂)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 조계종 원로의원

출가자는 스승 그림자 뛰어넘어야 비로소 깨쳐 주련 이해하려면 '있는 그대로' 세상 바라보아야

을 지나 극락보전에 이르기 전에 서 있는 장방형이다. 특히 위층에는 다락공간으로, 아래층은 본전에 들어가는 통로로 구성되어 있는데, 천장이 상당히 낮아 웬만한 성인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한다. 절에 들어올 때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라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신홍사의 낮은 누각의 주련 속에는 '하심(下心)'의 궁극적인 진리가 안에 숨겨져 있다. 말하자면 '깨달음이 있어도 닦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진리의 말씀이다. 여기에 새겨진 글씨는 추사 김정희의 필체로 전해지고 있다.

'눈 덮인 흰 봉우리에 푸른 소나무, 노란 꽃 가운데 솟은 푸른 대나무' 같이 깨달음이란 눈 덮인 한 겨울에도 푸른 소나무의 절개처럼 우뚝 서 있고, 노란 꽃 가운데서도 대나무처럼 곧게 서 있어야만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텅 빈 산에는 인적 없는데 꽃은 피고 물은 울면서 흘러가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물의 음(陰)에 있다. 인적 없는 곳에 꽃은 피는 데 물은 울면서 왜 그렇게 흘러가는 것일까? 바로 수행의 본분을 모르는 사람에게만 인으로 그저 괴로운만 쌓이게 될 뿐이라는 뜻이 숨겨져 있는 것이다.

우리가 사찰 주련의 뜻을 이해하려면 우선 생각해야 할 게 있다. 그것은 바로 '선(禪)'의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선은 언어를 부정하는 불립문자(不立文字)에서 출발한다. 때문에 언어에 따르는 사고 작용은 철저히 무시해야 한다. 그 이면에는 바로 '있는 그대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데에 있다. 즉,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밤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사는 본가는 언제나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혈맥론 3

마음이 곧 부처(即心是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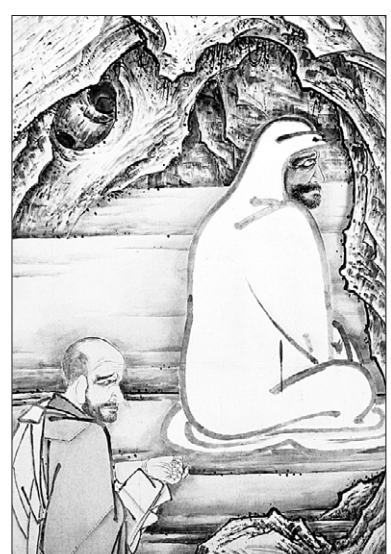
[원문]

從無始曠大劫以來 乃至施爲運動 一切時中 一切處所 皆是汝本心 皆是汝本佛 即心是佛 亦復如是 除此心外 終無別佛可得 離此心外 覓菩提涅槃 無有是處

아득히 먼 옛날부터 분별하고 움직이던 모든 때와 모든 장소가 모두 그대의 본심이며 그대 속의 본래 부처이니라. '마음이 곧 부처'라 하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이니라. 이 마음을 떠나서는 따로 부처를 찾을 수 없으니, 이 마음을 떠나서 깨달음과 열반을 구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라.

[해설]

달마 스님의 법문은 불교의 요지입니다. 연기법이나 인과법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윤리적인 부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면 이런 것은 해야 하고, 이런 것은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반야부에서는 진리의 실상(實相)을 말씀해주셨습니다. 불교를 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른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체가 마음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우주의 실상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달마 대사 해가 단비도(斷晴圖)' (동경박물관 소장)

<천수경>에 '나무 칠구지 불도 대준제보살(南無七俱伽 佛母 大准提菩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무'라는 말은 귀의, '칠구'라는 말은 칠역을 의미하므로 '나무 칠구지 불도 대준제보살'이란 칠역의 부처님 어머니가 대준제보살이라는 뜻입니다. 대준제보살은 관세음보살님의 다른 이름이므로 관세음보살님이 칠역이나 되는 부처님의 어머니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관세음보살은 반야(般若)를 의미합니다. <반야심경>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이 반야를 의지해서 최고의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주의 실상 일체가 마음으로 돼 있다는 그 자리를 반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지혜가 다른 이름으로 관세음보살님인 것이죠. 즉, 관세음보살이 곧 반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반야가 곧 관세음보살님을 말하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들이 이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해서 최고의 깨달음을 얻는다'는 <반야심경>의 설법은 반야를 의지해서 부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반야는 곧 관세음보살이라 할 수도 있고, 지장보살님이라 할 수도 있고, 석가모니부처님, 혹은 아미타부처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본래의 그 자리에 대해서는 반야라 해도 맞지 않고 관세음보살이라고 해도 맞지 않지만, 부득이 방편상

이름을 붙인 것일 뿐입니다. '반야'라는 그 자리는 어떤 문자나 언어로도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기에, 그 반야의 자리를 달마 스님께서는 억지로 '마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불교에 대해 바른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달마 스님께서는 "아득히 먼 옛날부터 분별하고 움직이던 모든 때와 모든 장소가 모두 그대의 본심이며, 그대 속의 부처이니라. 마음이 곧 부처라 하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모든 물질은 시간적으로 보았을 때, 항상 그대로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변하는 것은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본래의 마음, 즉 본심(本心)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여러분의 본래 마음자리(心地)에서 보면 이 우주는 그대로 하나의 마음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와 내가 따로따로 있는 것 같지만, 실상 우리는 하나의 마음으로 돼 있습니다. 달마 스님께서 모든 때와 모든 장소가 모두 그대의 본심이라 하신 것은 하나의 마음으로 봤을 때, 우리 본래 마음자리는 우주와 하나의 자리로 돼 있다는 차원에서의 말씀입니다.

또한 달마 스님께서 말씀하신 '그대 속의 본래 부처'는 본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 마음이 우주와 하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견성(見性)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견성 후 (언제 어디서나 본래의 마음자리와 완전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행을 한다면 우주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이 곧 부처'라 하는 것은 이 우주를 하나로 본 우주의 실상진어 자리를 말합니다. 반야니, 진여니, 진공이니, 관세음보살이니, 하는 것은 이름일 뿐입니다. 그 본래의 실상 자리는 그 어떤 문자나 언어로도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마음이 있기는 있지만 물질이 아니니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볼 수 없다고 해서 아주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중도(中道)라 합니다. 우주의 실상자리에서 문자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달마 스님께서는 "이 마음을 떠나서는 따로 부처를 찾을 수 없으니 이 마음을 떠나서 깨달음과 열반을 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이 마음은 우리들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와 하나인 마음'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달마 스님이 말씀하신 이 마음과 내 마음은 분명 다릅니다. 내 마음은 나의 마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주와 하나인 본래 실상자리인 마음자리를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 청주 혜은사 주지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생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 범패 · 작법무 - 불교 예술대학.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mgnet.net 전화 02)969-2410/969-4981 / 팩스 02)964-2433